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0월 18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요한복음 4장 19-24

설교제목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가운데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축약하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형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현장예배일까? 비대면일까? 우리는 그 답을 십계명의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공모임 자체가 우리 이웃에게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다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장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을 잘못되었다거나,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가?**입니다. 십계명의 제 1계명의 신명기 해설서 부분을 보면, 신명기 기자는 가나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명령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크고 높은 작고 낮은 산마다 굴을 파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거기다가 절하고 있었습니다.(신12:2-4) 이것을 먼저 철저히 **‘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롬12:2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결코 이 세대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는 결코 세속에 섞여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신12:5, 신12:11, 신12:13-14, 신12:18, 신12:26)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의 장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저자는 그 지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던 예배의 장소 문제를 꺼내듭니다. 어느 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장소냐?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란 그림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요4:19-20) 그런데 예수님은 두 장소를 다 부정하셨습니다.(요4:21, 23)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특정한 성전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구약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요2:19) 이제 우리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질문처럼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답입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답입니까? 이 답은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히10:19-22)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정 제단에 대하여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은 교회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의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절대시

하고,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온라인 공간도 예배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요4:24) 본문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형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와 교회공동체가 드리는 제의적인 공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삶의 예배이든, 공 예배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로써의 진정성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신12:7)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현장예배를 통해서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든, 교회 공동체의 공적 예배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습관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히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문에서 ‘폐하는’으로 번역된 ‘엔카탈레이포’는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 고난이 지속되자, 공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에도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 쫓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컨택트이든지, 언택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왜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참여하게 대립하던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예배당을 절대시하는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서로 접촉을 하지 않음) 시대입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현장예배가 강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